

제 67 차 이 사 회

- ◆ 일 시 : 2019년 12월 26일(목) 09시 00분
- ◆ 장 소 : 서울시립교향악단 4층 챔버연습실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재단
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제67차 이사회 의사록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일시	2019.12.26(목) 09:00	장소	서울시립교향악단 4층 챔버연습실
재적이사	13명(함영주, 강은경, 백일현, 유연식, 강은수, 고창현, 곽승란, 문종훈, 박성제, 박재은, 정태영, 허용수, 이왕준 이사)		
출석이사 및 감사	이사: 9명(함영주, 강은경, 유연식, 고창현, 곽승란, 문종훈, 박재은, 정태영, 이왕준 이사) 감사: 1명(조상호 감사)		
기록자	기획협력팀 노대민		

2019년 12월 26일

(개의)

[제65차 이사회 보고안건]

○ 사회 박종선 경영본부장

1. 보고안건 '제66차 이사회 결과보고'

2. 의결안건 2019년 이월예산 승인(안)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석급 부지휘자(Associate Conductor) 재계약(안)

부지휘자(Assistant Conductor) 계약 체결(안)

직제규정 개정(안)

운영규정 개정(안)

[의안번호 제205회] 2019년 이월 예산 승인(안)

○ 이사 정OO

특정목적의 예산이 이월이 되면 일반예산으로 들어가는가? 아니면 여전히 같은 항목에 포함되는가?

○ 사회 박OO 경영본부장

같은 항목으로 진행되며 사업비는 사업비로 이월됨

○ 이사 정00

동일항목으로 잡히는데 왜 이월예산으로 잡는 것인지. 서울시로 부터 지원을 받기 때문인가?

○ 사회 박00 경영본부장

2020년 사업부분은 현재 사업계획에 신규편성되어있음, 그런데 이월예산은 회계연도 내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건을 이월함

○ 이사 정00

예산을 지원받아 계약을 진행했지만 반환이 어렵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는가?

○ 사회 박00 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 이사장 함00

다른 질문사항 있으면 요청드릴

○ 이사진 일동

없음

○ 이사장 함00

그럼 원안대로 의안번호 제205호 이월예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겠음(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206호]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이사장 함00

2020년 사업계획에 대한 질문사항과 의견을 요청드릴

○ 이사 문00

서울시 출연금이 32.2%늘었는데 지출에서 예비비가 늘었기 때문인가?

○ 사회 박00 경영본부장

네. 신설사업도 있고 다른 부분은 예비비에 편성되어있음

○ 이사 정00

신설산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대표이사 강00

신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올해 재단은 예술적 수월성을 추구하는 사업을 주력으로 추진했지만 공공프로젝트 또한 성실히 추진하였음. 이를 서울시에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았고, 이사진들의 지원덕분에 사회공헌팀을 새로 만들고 그에 맞는 직원과 단원을 편성할 예정임, 서울시로부터 금년 13억원에서 내년 18억원을 받게 되어, 재단 출범 이래 가장 많은 시 출연금을 받게 되었음

○ 이사 정00

수고하셨습니다.

○ 대표이사 강00

내년에는 자주재원을 낮춰서 편성했음. 이의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재단을 인정해주고 1-2년 내 이런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사진의 도움 덕분이라 보고 있음

○ 이사 박00

대표이사님을 주축으로 스텝과 서울시향 멤버들이 무한한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함. 지금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예산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고 이사진들이 마음을 모았던 것이 성과로 연결된 것으로 보임. 칭찬과 감사를 드림

○ 이사 이00

30%이상 예산이 느는 것은 획기적인 일로 보임, 두 자릿 수 늘리는 것도 쉽지 않음

○ 이사 문00

사업운영경비에서 약 17억 증액해 주셨는데, 시향을 신뢰해주시고 좀 더 시민과 가까이 많이 활동을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음

○ 이사 정00

7페이지에 공연사업, 일반사업이 있고, 일반사업에 전산사업 홈페이지, 정보유지시스템 관리 등등이 포함돼 있음. 이 항목이 행정운영경비가 아니라 이쪽 계정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가? 언뜻 보기에는 운영경비, 관리비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임

○ 사회 박00 경영본부장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일반사업으로 분류함

○ 이사 정00

어떻게 지침이 정해지는 것인가? 직관적인 분류로 보이지 않음. 운영경비, 관리경비 비용의 합계 산출시에 전산관리비가 편성되는 것이 더 직관적임. 어떻게 정해지고 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함

○ 이사 유00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상이해서 이사님께서 의견이 있으신 것으로 보임, 서울시 산하 19개 재단이 있는데 통일적인 예산편성지침을 따르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공기업과에서 오셨으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서울시 공기업과 김00 주무관

사업비로 편성해야 한다는 지침은 없음. 다른 재단 같은 경우 이런 비용을 전산관리비나 경비 쪽에 편성하는 기관들이 더 많음

○ 이사 정00

네. 전산관리비가 공연비와 같은 대분류에 포함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음. 공공기관의 관례나 지침 등을 정확히 모를 수 있지만 직관적으로 그렇지 않아 보임

○ 사회 박00 경영본부장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00감사팀장께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음

○ 감사팀장 이00

2005년 법인 설립 시 예산을 담당했었음. 당시 서울시 예산 편성시 일반관리비 비중의 증가를 부담스러워했음, 법인 설립초기 전산/홈페이지 관련 예산편성이 많이 필요하므로, 일반적인 출연기관의 비중을 유지하면서 사업비로 편성을 했었고, 그 이후 예산과목 변경이 쉽지 않아 관례적으로 일반사업쪽으로 편성했음

○ 이사 정00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음. 소위 본질적인 일에 얼마나 돈이 들고 이를 위한 관리비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한 비율임. 이는 매우 중요함. 그런데 이를 분모에서 분자로 옮기면

비율이 굉장히 달라짐. 우리가 공연을 몇 번 하기 위해 본질적인 비용과 관리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비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보는 것은 손에 꼽히는 중요한 항목임. 그런데 지금 하는 것처럼 하면 왜곡됨.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는 바꿔놓아야 함. 처음에 그렇게 시작된 배경과 이유는 이해가 가지만 지금은 여유가 있으니 바꿨으면 함

○ 사회 박OO 경영본부장

네. 이 부분 보완해서 예산 편성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이사 문OO

전산사업이라고 되어있지만 시스템인데 사업에 포함된 것이 직관적이지 않음

○ 이사 정OO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함. 올해 공연비가 늘고 일반관리비가 줄어든 것은 좋고 건전한 것이나, 공연사업에 들어가는 지출대비 일반관리비가 굉장히 많음. 정기공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를 위해 드는 지출과 관리비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정기공연에 더 투입하고 시민공연은 여전히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단원의 직접수행보다 재단과 관계를 갖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많은 음대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런데 지금 그 비율 자체가 관리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보임

○ 이사 문OO

이사님 말씀대로 각 사업 항목별로 원가개념이나 이런 부분을 더 보고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사 정OO

예산을 줄이자는 얘기가 아닌 더 많이 쓰자는 얘기이고, 우리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들어가고 부수적인 것에 지출이 어떤지 계속 볼 필요가 있음. 그런데 정기공연과 시민공연의 지출구조가 크지 않고, 공연에 전산비가 포함되어 있음. 우리가 추세를 살피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항목자체가 이렇게 되면 경영분석이 안되고, 경영분석이 안되면 경영은 개선될 수 없음

○ 대표이사 강OO

네. 내년에 팀과 사업 신설로 새로운 실험을 하는 시기에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면 말씀하신 부분을 더 감안하도록 하겠음

○ 이사 정00

일단 예산분류방식이 달라야 함. 본질적인 여러 것들과 부수사업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일반사업으로 들어간 전산비는 관리비로 변경 하는 등 의미 있는 숫자를 갖고 운영할 수 있는 회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함

○ 대표이사 강00

본질적으로 이 체계 자체를 바꾸자는 말씀으로 이해됨

○ 이사 정00

자동차의 계기판이 제대로 되어있어야 속도를 늦출지, 올릴지, 연료를 갖다 어떻게 넣을지 얘기할 수 있음. 회계가 바로 서야 회사가 바로 선다고 생각함. 저 같은 사람이 이사로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분류되고 앞으로 서울시향이 잘 운영되는 토대가 됐으면 좋겠음.

○ 대표이사 강00

이사님께 계속 상의 드리고 진행해도 될지 문의드릴

○ 이사 정00

네. 괜찮습니다.

○ 이사장 함00

무슨 말씀을 어떤 취지로 하셨는지 다 이해를 하셨을 것이라고 봄. 민간기업은 기업회계기준 등 기준이 있는데 공연사업은 그런 회계기준이나 항목 등이 따로 없음

○ 이사 정00

없을 것 같음. 회계의 기본이 사업목적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 아닌데 이는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사장 함00

지적이라기보다 공연의 본질적인 부분을 체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바탕이 되는 비용부분도 제대로 분류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음. 그런데 내년에 이것을 개선할 수가 있는가? 회계처리를 해야 할 텐데.

○ 이사 유00

저희가 공기업과와 시향과 같이 상의하고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음

○ 이사 정00

그렇지 않으면 내년 12월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거나 없어질텐데. 이번에 예산집행을 이렇게 통과시키더라도 한번 바꿀 필요가 있음. 회계의 가장 기본은 내 사업을 내가 한눈에 알게 하는 것임. 일반기업은 세무적인 분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재단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금 개선할 여지가 있어보임

○ 이사 문00

일반기업과 달리 공기업은 서울시 본부와 굉장히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지원이 필요함

○ 이사 정00

서울시가 투명성을 마다할 리가 없음

○ 이사 유00

마다하지 않음

○ 이사 이00

예산안 통과를 시켜야 하는데, 항목변경시 예산총액이 같더라도 다른 부가적인 이슈가 생기고 세무적인 문제가 있어서 합부로 바꾸거나 대체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음

○ 이사 정00

시향은 세무적인 부분이 없음

○ 이사 이00

네. 그래서 전체 예산총액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고 세부항목을 바꾸는 것을 연초에 조정하는 것을 제안드림

○ 이사 정00

서울시 산하이므로 항목변경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서울시가 볼 때 합리적으로 분류만 변경하는 것이면 서울시와 상의해서 수정하고 이사회에서 다시 추인할 수도 있음

○ 이사장 함00

오늘은 총예산규모와 관련 부분을 일단 가결하고 다음에 항목에 대한 분류에 대한 것을 수정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음

○ 이사진 일동

좋습니다.

○ 이사 고00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함. 240억 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이 60억이고 인건비가 140억원으로 두개가 제일 큰 항목임. 기존직원의 임금상승분과 신규채용인건비도 있겠으나, 단원모집도 제시되어있음. 악장, 트럼펫, 트럼본, 호른, 첼로, 팀파니 수석분들이 많이 안 계신데 이런 수요들을 감안해서 편성이 된 것인가?

○ 대표이사 강00

네. 음악감독님이 오시면 5년동안 하지 못했던 악장을 포함한 주요직책의 오디션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며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 이사 정00

늘어나는 예산 중 얼마가 이쪽에 들어가고 사회공헌팀에는 얼마가 들어가는가?

○ 대표이사 강00

경영지원팀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음

○ 경영지원팀장 조00

신설되는 사회공헌팀 중 증원은 인건비가 아닌 예비비로 편성되어있음, 현 정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로 편성할 수 없어 예비비로 편성했고, 단원 오디션은 인건비에 해당됨

○ 이사 이00

기존 단원들에 대한 임금 인상률은 어느정도인가?

○ 경영지원팀장 조00

예산지침에 따라 1.8%반영함. 인건비 17억중 음악감독 인건비도 포함되어있음

○ 이사 박00

수석은 모두 몇분 채용예정인가?

○ 대표이사 강OO

악장을 포함한 결원된 수석을 다 채우고자 함. 혹시 자격이 되지 않은 지원자들이 있을 경우 재오디션등 연내에 충원이 어려울 수 있으나 목표는 연내에 받은 예산 내에서 비워있는 모든 수석자리를 채우고자 함

○ 이사장 함OO

추가 질문 있으시면 요청드릴. 여러 이사님들이 주시니 의견을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음

○ 가회 박OO 경영본부장

전체 체계를 점검하고 변동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하겠음. 서울시와 협의해 변경의 여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음

○ 이사장 함OO

그러면 의안번호 제 206호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겠음(의사봉3타)

[의안번호 제20호] 수석급 부지휘자(Associate Conductor) 재계약(안)

○ 이사장 함OO

본 안건에 대한 질문사항을 요청드릴

○ 이사 정OO

음악감독 의견도 반영된 것인가? 아니면 별개로 재단에서 정하면 되는 것인가?

○ 대표이사 강OO

원칙적으로 부지휘자는 음악감독을 돕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음악감독의 의견이 중요하나 정식부임은 내년부터임. 따라서 적극적인 의견을 먼저 주셨다기보다 진행을 하면서 의견을 청취했고 내외부평가를 취합한 다음 음악감독의 의견확인을 받아 진행하고 있음

○ 대표이사 강OO

단체협약 교향악단의 주요 예술적 직책을 뽑을 때 단원들의 의견을 받아 합의해서 진행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경영을 하고 있음. 또한 이전에도 음악감독 선임을 포함해 모든

절차는 그렇게 이루어졌고 부임 이후에도 함께 호흡하는 단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했음. 또한 다른 주요 직책 관련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표준이라고 생각함. 단협을 이사님들께 공유드리겠으나 지금 논의가 부지휘자 논의이므로 이사회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 부분에 한정하여 말씀드리고자 함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음. 단체협약 체결 이전 수석부지휘자로 내년 주요공연에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있었으나 노사측의 의견수렴 절차가 지연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함. 내년부터는 재단자체 기준을 만들고 이사님들께 보고드리겠음. 흑백식의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므로 각각의 영역별로 정확한 평가와 반대 시 이유를 명기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많은 단원들의 의견이 있었음. 단협 직후 수석부지휘자의 계약 갱신절차가 있어 협의과정에서 양측이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 대비도 충분치 못했음. 그러나 성장하는 지휘자를 지켜보고 지원하는 것이 재단의 역할 중 하나이므로 내년에는 부지휘자의 기여도를 높이고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조와 수많은 단원들과 상호간에 의견을 나누었음. 노동자이사님께서도 많은 노력으로 관련 내용을 취합해주셨음

○ 이사 곽OO

그 부분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음. 노동조합은 생긴지 3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음. 그 전의 기간 동안 세계 유수 오케스트라의 역사를 보면서 단원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갖고 의견을 피력하려는 수요가 있었고 좋지 않은 단원들의 처우개선 등 의견수렴을 위한 노조가 필요했고 설립됐음. 이후 부지휘자, 공연기획자문역, 상임지휘자 등 큰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에 대한 단원의 목소리를 하나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모여져서 중요한 항목이 된 것으로 보임

○ 이사 고OO

단협은 노동조합과의 약속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음.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임. 사항 이사회 규정 관련해서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사회 승인, 보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지, 그렇지 않더라도 이사분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됨. 다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존중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미리 협의를 하고 의견을 받고 협의, 통지, 동의, 그리고 동의 시 필요한 사유 명기 등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심사숙고를 거쳐서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 아닌 생각됨. 따라서 그런 절차 없이 지금 각

안전에 따라서 안전별로 통보받는 것은 이사회 운영관련 문제가 있다고 보임.

○ 이사 정00

이 건이 어떻게 이사회 결의 사항이 아닌가?

○ 이사장 함00

고00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함

○ 이사 정00

저도 그렇게 생각함

○ 이사장 함00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음

○ 이사 고00

단체협약과 관련된 이사회 규정을 보내주시고, 단협 체결경위도 알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이사 이00

단협의 버전별로 추가되고 변경된 내용도 필요함

○ 이사 정00

이사회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사전단계를 통과해야 이사회에서 토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이사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물어볼 수 밖에 없음.

○ 대표이사 강00

절차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고 협약을 진행한 것에 대해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노동조합이라는 표현보다 단원의 의견이라고 표현하고 싶음. 주요 오케스트라에서도 이런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음. 일반기업에서 직원이 임원의 이사회에 의견을 개진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오케스트라 운영에서는 국제표준이라고 생각해 시향이 선도적으로 이를 맞추는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음. 이 부분에 대해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 자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노사정협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음

○ 이사 이00

제가 알기로 베를린필이나 유수 단원들이 포함된 교향악단에서 상임지휘자에 대한 투표권을

갖고 있는 오케스트라도 있지만 그 형식이 노동조합이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단원들이 일종의 주주가 되어서 스스로 단원자격으로 상임지휘자를 뽑는 것이지, 우리나라 같이 노동관계법에 한 내용으로 노동조합에 의한 것은 아님, 형식은 비슷하지만 법률적인 해석이나 내용은 전혀 다르게 반영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선진국과 국제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좋은 교향악단을 언급하는 취지는 충분히 맞는 얘기지만 노동관계법에 묶여 있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법과 노동법은 선진국과 구조가 다르고, 복수노조가 있는 재단의 상황에 일반화시켜 넣는 것은 다름. 취지는 동일할지라도 마지막에 나온 결과물과 결론이 꼭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 보임

○ 이사 정00

서울시향 회의를 하면서 외국 사례를 자주 언급하시는 내용을 많이 듣게 되나 앞뒤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회사에서 단원에 대한 고용권, 기업의 문화 등 고려해야 할 개별요소가 많이 있음. 노조가 잘못되었거나 다른 판단을 우려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서로 전체 간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함. 리더십 조건, 대외 섭외 등 다양한 조건과 방법을 강구해서 한 팀을 만드는 것임

○ 이사 광00

제가 외국사례를 드는 이유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오케스트라가 나가야 할 방향, 역사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서임. 단계적으로 수순을 밟을 필요가 있고, 지금 갖지 못했던 여러 권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보임.

○ 대표이사 강00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보충설명드리고 단협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음. 해외 특정사례를 무조건 추종하는 것은 아님,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향이 처해있는 대내외환경 중 중요한 것은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이라는 것임. 그리고 서울시는 노동존중 철학이 강함. 단협체결시 이사장님께 간단한 보고를 드렸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받아 진행한 사항이며,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음. 이런 부분에 대해 독단적으로든지 해외 사례라든지 주관적인 의견에 따라 한 것은 아님

○ 이사 정00

아무리 서울시와 의회에 보고를 드렸어도 서울시향의 가장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임.

회사 임원이 주주총회 가서 얘기했기 때문에 대표이사 보고를 누락할 수는 없는 것임

○ 이사 박00

유수의 오케스트라들이 복수노조 내지는 자신의 권리에 의해서 생기는 사례가 많은가?

○ 이사 박00

복수노조에 대해서는 모르겠음

○ 이사 이00

유럽에서는 대부분 유니온숍을 함. 회사를 들어오는 조건 자체가 노조가입임. 외국에서는 노조가입이 기업에 입사하는 기본적인 노동조건임. 유니온숍과 지금 교향악단을 운영하는 의사결정 거버넌스와는 별개의 메커니즘임. 우리는 성숙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권리를 찾는 유일하고 통합적인 통로가 노동조합이므로 이를 통해 권리를 실현하고자 함. 취지는 알고 맞는 얘기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관련 결정을 할때 이사회와 긴밀한 의사소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임. 노동을 중시하는 서울시 정책과 전문적인 판단도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단원과의 소통이 중요한 만큼 이사회와의 소통이 중요하고, 단원, 서울시, 이사회 간 소통이 필요하므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얘기했으면 함.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이사회 논의를 통해 단협 사항보다 더 상위의 발전된 단원의 참여와 발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이사장 함00

여러 이사님들 의견이 있었는데, 물론 불가피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함. 단협의 내용을 한번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함

○ 이사 박00

시간이 없어서 부지휘자 재계약과정을 말씀 못 드렸으나, 이런 결과가 나온 배경이 꼭 노조만의 의견이 아님을 추후에 말씀드리겠음

○ 이사장 함00

이사님들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대표님께 그런 추가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고 주신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207호 수석급 부지휘자 재계약(안)은 원안의결하겠음(의사봉3타)

[의안번호 제208호] 부지휘자(Assistant Conductor) 계약 체결(안)

○ 이사장 함00

이번 안건에 대해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 이사 문00

최종으로 올라오신 분이 몇 분인가?

○ 사회 박00 경영본부장

4명임

○ 이사 문00

서울시향에는 인재를 키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이사 정00

한국에서 국제적인 수준의 연주자는 나오고 있는데 지휘자는 어떤 수준인가?

○ 이사 박00

관점과 기준에 따라 다르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지 또한 관점이 될 수 있음. 그러나 문00이사님 말씀에 동의함

○ 이사 광00

관련된 설명을 드리겠음. 단원들은 정기연주 외 찾아가는 음악회 등 바쁜 일정으로 공연별 리허설 시간이 충분치 않음. 이를 감안하여 짧은 시간 내에 공연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지휘자의 리더십과 역량이 중요함. 재단의 인재양성 측면도 중요하지만 단원 입장에서는 역량을 갖춘 지휘자가 필요함

○ 이사 고00

지금 계약(안)의 금액의 수용의사를 보인 것으로 보임

○ 대표이사 강00

수용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이사님들께서 재가 해주셔야 함

○ 이사 문00

이 의안에 대해 일단 동의함. 그러나 시향의 발전을 위한 시향의 방침과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외부관계자들 간 설득이 됨. 전체적인 시향이 가야 할 전략을 가지고 이사회와 노조와 같이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 이사 고OO

공개채용 최고득점자가로 제시되어있음. 부지휘자 선정위원회가 있었고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양쪽에서 공히 최고점을 받은 것인가?

○ 대표이사 강OO

네

○ 이사 정OO

단원평가는 동의사항인가? 아니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인가?

○ 대표이사 강OO

단협체결이전부터 단원들이 의견을 내어 다같이 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 이사 고OO

부지휘자에도 동일한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임, 상임이지만 책임지는 공연 횟수 등, 경력과 연습 등을 고려해서 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보임

○ 이사 이OO

부지휘자의 관행적인 연봉에서 일부 낮게 조정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지휘자, 상임지휘자, 부지휘자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정하면 수준과 연봉을 조정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음. 생각할 때 상임지휘자와 부지휘자의 역할 자체가 분명하지 않아 보임. 부지휘자의 경우 메인공연은 거의 없고 지휘자의 보조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할구조로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중요해보임

○ 이사 고OO

단원 입장에서 리허설 한 두번 이후 바로 공연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데, 초등학교 음악수업 2교시 등에 편성되어있는 것을 볼 때 추가적 고려가 필요해보임

○ 이사 정OO

연봉을 상향시키면 우리의 선택의 폭이 넓어짐, 연봉과 상관없이 경력을 쌓으라고 요구하면

결국은 그 조직이 페이를 하게 됨. 의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소수의견으로 상향을 제시하고자 함

○ 이사 문00

연봉과 함께 연주수당이 지급되는가?

○ 대표이사 강00

지휘자는 수당이 없음

○ 이사 문00

단원들은 연주수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대표이사 강00

네. 차년도에 50% 인상됨

○ 이사 문00

그런데 지휘자는 없는 것인가? 상임지휘자는 있는데 부지휘자가 없는 것인가?

○ 사회 박00 경영본부장

급여를 책정해놓고 채용을 진행한 것은 아님, 응시자 중 선발 후 경력을 감안하여 책정함

○ 이사 정00

채용 시 줄 수 있는 능력과 급여 범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

○ 이사 이00

일단은 고려사항을 반영해 공고를 냈고 동의를 되서 지금 다 정해진 것이라면 보수에서 기본연봉을 바꾸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연주수당 지급 등을 통해 배려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는 것을 제안함. 이번 계약은 1년 단위이므로 조금 길게 봐도 좋을 것 같음

○ 대표이사 강00

공연사업팀장이 어떤 근거로 이런 부분이 반영됐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음

○ 공연사업팀장 백00

사에서 받은 예산운용 가능 범위가 있었음. 연봉책정의 주요 이유는 오케스트라 경험 등을 반영하여 부지휘자의 경력을 산정하고 연봉을 책정했음

○ 이사 정00

연봉을 올리게 되면 차년도는 더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거나 현재 채용예정자에게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됨. 상향된 금액이 기준이 되면 다음 이사회 시 토론이 있고, 다음 사람은 이런 이사회 시 토론을 참고할 수도 있음

○ 이사 문00

그렇다면 성과급으로 주는 것이 어떤가? 단원의 평가가 의의가 있을 수도 있음

○ 이사 정00

총액을 위해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분할 지는 고민의 여지가 있음. 그동안 지휘자 수당이 없었던 것은 업무의 특성상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

○ 대표이사 강00

부지휘자는 상근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석부지휘자와 같이 논의되는 것이 필요함

○ 이사 박00

동의함

○ 이사장 함00

이사님들의 의견을 대표님께서 참고해주시고 그런 역할과 시스템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 봤으면 함. 채용예정자는 이 금액을 수용한 것으로 보임

○ 대표이사 강00

이사님들께서 최종의견 주시면 수석부지휘자와 부지휘자의 최종급여를 더 반영할지 이 자리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음

○ 이사 유00

조금 전에 시에서 준 예산범위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내년예산이므로 시향에서 알아서 계획을 세우고 운영하는 것임. 지금이라도 말씀하셨듯이 조정의 여지가 대표님께 있음

○ 이사 정00

대표님께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것이 필요해보임, 매년 올릴 수 없는 것은 한번 조정할 때 기준을 바꿔놓았으면 함

○ 이사 박00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이 있음. 시향의 위상이나 기대를 반영해 한국지휘자를 발굴하는 일을 꼭 해주셨으면 함

○ 이사 정00

동의함

○ 이사장 함00

이사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대표님이 결정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의안번호 제208호 부지휘자(Assistant Conductor) 계약체결(안)은 원안가결하겠음(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209호] 직제규정 개정(안) 토의]

○ 이사장 함00

본 의안에 대한 질문사항과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 이사 정00

정규직 전환에 동의하고 서울시향은 이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함. 그런데 정규직 전환에는 안정성 및 개인의 두 가지 수요가 있음. 후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시 직급부여와 대우 등 직분제를 미리 대비해 두어야 함. 또 다른 질문은 사회공헌팀 신설관련, 확대되는 공익공연 사업을 단원들을 전적으로 투입해서 할 것인지, 이게 꼭 최선인지 의문임. 공익공연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하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하자는 의견임

○ 대표이사 강00

처음에 전담팀 논의 시작 시 서울시와 논의사항 중 하나는 서울시향 안에 제2오케스트라 운영 등을 통해 예술적 수월성을 추구해야 하는 단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지 않는 것이었음, 내년에 서울시와 계획된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채용 시 시간이 불충분하므로 우선 행정팀을 구성하였음. 이후 단원, 악기/악보 전문위원의 수요도 별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단원 타이틀직 등 이의 해소를 위한 시간이 필요함

○ 이사 정00

제 말씀의 의도는 채용이나 제2오케스트라 창단이 아님. 전국에 찾아다니는 음악회를 열었을 때 음대학생들에게 공연지역과 수당을 제시하고 공연마다 응모를 통해 진행했음. 음대학생도

좋아했고 봉사하는 의미도 있었음, 서울시향 단원과 음대 학생 등에게 우리의 계획을 얘기하고 테스트하고 독려하면 참여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대표이사 강00

저도 유사한 제안을 드렸으나 서울시향이 직접 진행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받았음

○ 이사 고00

20년 신설/확대 공연리스트 전체를 사회공헌팀에서 주관하는 것인가? 찾아가는 음악회, 전통시장 클래식, 거리공연 등은 해당팀 주관 같으나, 국내순회공연이나 베세토 프로젝트는 성격이 달라 보임

○ 대표이사 강00

자료가 잘못되었음. 국내순회공연과 베세토는 공연사업팀임

○ 이사 고00

그런데 사회공헌팀과 공연사업팀의 사업들을 단원들이 모두 해야 하면 결국 이 전체를 총괄할 누군가가 필요함. 전체 모든 공연을 단원들이 전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생각의 여지가 있어 보임. 적절한 수와 공연은 서울시향 단원들이 하되 나머지 부분들은 말씀주신 것처럼 단원이 1-2명 들어가는 등 조금은 다른 구성을 고민해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 이사 정00

국외의 우수 오케스트라도 모든 공익공연을 다 단원들이 소화하는가?

○ 이사 유00

이사님들의 말씀을 반영하고 대표님과 상의해서 단원들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음

○ 이사 이00

부담이라기 보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공연단체들의 딜레마임. 이 건이 지난 의회에 시의원/도의원이 지적하는 제일 핵심적인 문제임. 세비를 가지고 소수의 관객만을 위하고 서민을 위하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을 던지는 것임. 이는 서울시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감독기관 등 오케스트라와 공연예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차이임. 공공성이나

지역순회 등 클래식대중화라는 결론과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예산확보가 어려우므로 시대흐름에 맞추는 것이 근본적인 딜레마가 되는 것임. 공연의 대중화나 시민들에게 환원되어야 하는 논리들을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하겠지만 공연의 양과 질을 높이는 것이 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함. 서울시에서 다른 메커니즘으로 가는 것을 수용해주면, 시향은 공연과 사업의 질을 책임지고 운영하면서 훨씬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논리를 세우면 외부 지적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사 정00

서울시향과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과 사업을 같이 진행하면 공연도 많아질 수 있고 그 분들에게도 기회가 됨. 서울시가 지향하는 젊은 연주자들을 육성하고 키우고 돕는 취지도 충분히 바람직한데 왜 안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됨

○ 이사 박00

서울시향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와 평가와 명성을 생각하면 현실과 조금 다를 수 있음

○ 이사 곽00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 시 관객피드백이 중요한데 홍보가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음. 또 서울시향 단원들이 연주하는 것과 학생들이 연주하는 것은 다름. 시민들은 서울시향 때문에 오는 것이기도 함

○ 이사 정00

이해함. 그렇다면 일부를 조정해서 소화하면 어떤지

○ 이사 곽00

동의함. 일부 사업은 조정이 가능할 것을 보이며 이런 부분은 대표님께서 해소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대표이사 강00

시작전이므로 지금 의견 주시면 앞으로도 반영할 수 있음

○ 이사 이00

사회공헌팀은 팀장1명에 몇 명으로 구성되는가?

○ 대표이사 강00

5명으로 예정하고 있으나 이사님들께서 의사주시면 이를 연초 인사에 반영할 수 있음

○ 이사 이00

현재 공연사업팀은 몇 명인가?

○ 대표이사 강00

팀장1명에 팀원6명임

○ 이사 정00

많아 보임

○ 사회 박00 경영본부장

신설확대부분은 이번에 증원되는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함이고 사업을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아님

○ 이사 이00

증원된 5명의 인원 중 사회공헌팀에 몇명을 보내고 나머지는 어느쪽에서 보강을 할 계획인가?

○ 대표이사 강00

아직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음

○ 이사 문00

팀장1명, 팀원 4명으로 되어있음

○ 이사 정00

정기공연에 반 정도의 규모인가?

○ 대표이사 강00

기존의 직원이 갈 수도 있음. 지금 가동이 되어야 하는데 뽑으려면 두달 이상의 서울시와 협의기간이 필요함

○ 이사 정00

그러면 정기공연팀의 규모가 축소되는가?

○ 대표이사 강00

그렇지만 또 채용함

○ 사회 박00 경영본부장

전체적인 사업의 내용에서 사업팀이 하는 업무가 다양하며 현재 업무가 다 포함되어 있음

○ 이사 문00

정확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직제규정에 의하면 5명 증원이 됨. 팀 간 조정은 별개의 문제이나 승인을 요청한 사회공헌팀의 역할, 미션을 정해줘야 승인을 할 수 있음

○ 이사 이00

기존 조직에 사람을 증원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사회공헌팀 신설 인원을 수용한 뒤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대표이사 강00

사회공헌팀은 생애주기별 교육사업, 아웃리치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되게 됨

○ 이사 이00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분들의 노동조합 가입은 의무인가? 본인의 선택인가?

○ 대표이사 강00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임

○ 이사 유00

재단의 정원의 분류에서 운전기사, 비서, 환경미화원 이 부분을 묶어서 행정지원직으로 하는 것을 제안함

○ 사회 박00 경영본부장

반영하겠음

○ 이사장 함00

이를 반영하여 직제규정은 운전기사, 비서, 환경미화원을 묶어서 행정지원직으로 수정의결 하겠음(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210회] 운영규정 개정(안) 토의]

○ 이사장 함00

본 의안에 대해 질문사항과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 이사진

없음

○ 이사장 함OO

그러면 의안번호 제210호 운영규정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의사봉 3타)